

공현 후 3주일(연중 3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최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스테반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 243장 .....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 8쪽 ..... 집 전 자  
†죄의고백 ..... 9쪽 ..... 다 함 께  
†영광송 ..... 12쪽(C곡) .....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 도 ..... 집 전 자  
은총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회개하라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처럼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1독서 ..... 요나 3:1-5, 10 ..... 말 은 이  
성 시 ..... 시편 62편 ..... 다 함 께



- 1 내 영혼아, 오직 하느님 품 속에서 고이 쉬어라.  
○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에게있네니.
- 2 그분 홀로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시며  
○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 3 내 구원과 영광은 하느님께 |있으니  
○ 나의 견고한 바위되신 주님께 |피신하리라.
- 4 사람들은 숨결에 지나지 않으니,  
높다는 것도 실은 |거짓말,  
○ 모두 합쳐 저울에 올려놓아야 역시 숨결보다되기뻔다.
- 5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는 생각도 |버려라.  
○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 마음 |쏟지마-라.
- 6 모든 힘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며,  
○ 인자하심도 하느님께로부터 |나옵니-다.
- 영광이 |성부 와 ○ 성 |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독서 ..... 1고린 7:29-31 ..... 말 은 이  
†복음환호송 ..... 말 은 이  
†복음서 ..... 마르 1:14-20 ..... 말 은 이

설교 .....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 16쪽 .....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 19쪽 ..... 다 함 께  
†봉헌성가 ..... 391장 ..... 다 함 께  
성찬기도 ..... 20쪽 ..... 1 양 식  
거룩하시다 ..... 22쪽(C곡) ..... 다 함 께  
주의기도 ..... 25쪽 ..... 다 함 께  
성체나눔 ..... 26쪽 .....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27쪽(C곡) ..... 다 함 께  
성체성가 ..... 602장 ..... 다 함 께  
†영성체후기도 ..... 29쪽 .....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 29쪽 ..... 집 전 자  
†파송성가 ..... 394장 .....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1월 21일)	다음 주일(1월 28일)
1독서	백남진	정연창
2독서	박선희	박순호
대 도	황선숙	조장은
다음주일 전례독서	말라 3:1-5   시편 24 히브 2:11-18   루가 2:22-40	
성 가	178   507   483   394	
복 사	최하현	보혈조력    정요셉
다음주간 교회청소	<2조> 김준우    조장은    류한신	

(1997-2024 / 교회설립 27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4년 1월 21일 공현 후 3주일(연중 3주일) · 나해 · 녹색

제28-3호

“나를 따라오너라.”



지난주일 복음에서 우리는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통해 "와서 보라"는 예수님을 향한 초대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하고 당신의 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부르심'입니다. 사람이 나서서 '신'을 찾는 것이 여러 종교의 특징이라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하느님께서 나서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를 '소명', '사명' 또는 '부르심'이라 합니다. 성서의 많은 내용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뜻과 목적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느님 나라와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네 명의 어부를 부릅니다. 갈릴래아 바다에서 어업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이었는데 나자렛에서 어느 젊은 예언자가 오더니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들은 따라갑니다. 하느님 나라는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길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또 아버지과 새끼들을 배에 남겨 둔 채 예수님을 따라나섰습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인간관계와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일, 곧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시게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 애쓰셨던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려면 자신을 붙잡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방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했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앙은 변화와 성숙을 향한 여정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며 건네는 부르심과 동행의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 협동사제 최수재(토마스) 신부  
신자회장 최용옥(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아나)

## 주님의 봉헌 축일(1월 28일) - 봉헌으로 일치하는 우리의 삶

교회는 예수 성탄 대축일부터 40일째 되는 2월 2일을 주님의 봉헌 축일로 지냅니다. 올해는 1월 28일, 주일로 옮겨 지킵니다. 주님 봉헌 축일은 성모 마리아가 모세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하느님께 봉헌한 일을 기념합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이 축일을 지내왔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4세기 말부터 이 축일을 기념했고, 5세기 중엽에는 촛불 행렬을 시작했습니다. 6세기에는 동방교회에 전파되었습니다. 7세기 후반 서방교회에 들어왔고, 처음에는 동방교회처럼 '만남의 축제일' 또는 '성 시므온의 날'로 지냈으나 성모 신심과 성모 축일이 발달함에 따라 1969년까지 '성모 취결례(取潔禮)'로 지냈습니다. 1970년부터 축일의 본뜻을 되살려 '주님 봉헌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중세 후반에는 촛불을 들고 행렬하기 때문에 '성축절(聖燭節)'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렬에 사용되는 초를 축복하던 전통은 한 해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하는 관습으로 정착되어 이날 성전과 각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날 교우들의 봉헌서약을 모아서 함께 봉헌합니다. 오늘(1월 21일)까지 봉헌서약을 정성껏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날 대림 성서 필사 노트를 봉헌합니다.

봉헌의 뜻은 신앙생활의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실상 하느님께 드리는 것은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서 드리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 의지로 드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느님께서 받아주시기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봉헌되듯이, 우리의 삶도 가족과 교우들의 봉헌을 통해서 하느님께 봉헌됩니다. 우리는 봉헌하는 이들인 동시에 봉헌되는 이들입니다. 여기에 깊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비가 있습니다.

### 이번 주간 외울 말씀 13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마태오복음 7장 12절)

### 교회소식

#### ■ 전례와 사목

##### ◆ 연중절기 전례 안내

전례색: 녹색 / 전례곡: C곡 / 송가: 영광송

##### ◆ 주님의 봉헌 축일 양초 및 봉헌서약서 축복식

일시: 다음 주일(1월 28일) 성찬례 중  
내용: 주님의 봉헌 축일에 교회와 가정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양초를 축복합니다.  
※ 봉헌(헌금) 서약서를 봉헌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대림 성서 필사 노트를 봉헌합니다.

#### ■ 알림

##### ◆ 성직자 인사발령

최수재 토마스 신부님이 평택교회 협동사제로 이임합니다. (이임: 1월 28일)

##### ◆ 십일조(월정헌금) 서약서 봉헌

2024년도 십일조(월정헌금) 서약서를 기도 가운데 작성하여 '봉헌'순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교우 성서 교육

오늘(21일) 애찬 후에 성서 교육이 있습니다.

##### ◆ 어린이 예배 (매월 셋째 주일)

오늘(21일)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 ◆ 베다니회 하루 피정

1월 27일(토) 오전 10시 ~ 4시 / 성가수녀원

##### ◆ 청년회 모임, 학생회 모임 시작

다음 주일(1월 28일)부터 11시 성찬례 후에 청년회 모임과 학생회 모임을 따로 시작합니다. 청년·학생회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전국성직자 신학연수

1월 29일(월) ~ 31일(수) / 경주 마우나 리조트

##### ◆ 성지가지 수거

각 가정의 성지가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 교우 소식

##### ◆ 생일을 축하합니다 임예지(23일)

###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1,070,000원  
김준우/조장은 박종례 이진봉/김영란  
최용옥/윤희진 허예영/동소신

■ 주일헌금 283,000원  
고미순 권순호 김소라 김승현 류한신 백수빈  
백옥경 신동홍 유군상 유정훈 이동우 이범희  
이서현 이원주 이윤식 조준행신부 지영주  
채희영 최미혜 한명숙 황선숙

■ 주일학교 2,000원  
유아윤 유아현

■ 감사 헌금 310,000원  
유군상(팔순) 이동우(생일) 차준섭신부/김승숙  
허예영(추모)

〈 성공회 산본교회 봉헌 안내 〉  
신한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 주간 전례독서 (1월 22일 ~ 27일 / 연중 3주간)

	독서	복음
22일(월)	사무하 5:1-7, 10	마르 3:22-30
23일(화)	사무하 6:12-19	마르 3:31-35
24일(수)	사무하 7:4-17	마르 4:1-20
25일(목)	갈라 1:11-24	마태 10:16-22
26일(금)	사무하 11:1-10, 13-17	마르 4:26-34
27일(토)	사무하 12:1-7, 10-17	마르 4:35-41

### ※ 기도해 주세요 ※

#### ◆ 우리교회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신앙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 ◆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옥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명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 ◆ 새교우(예비 신자)

이요한 전아영